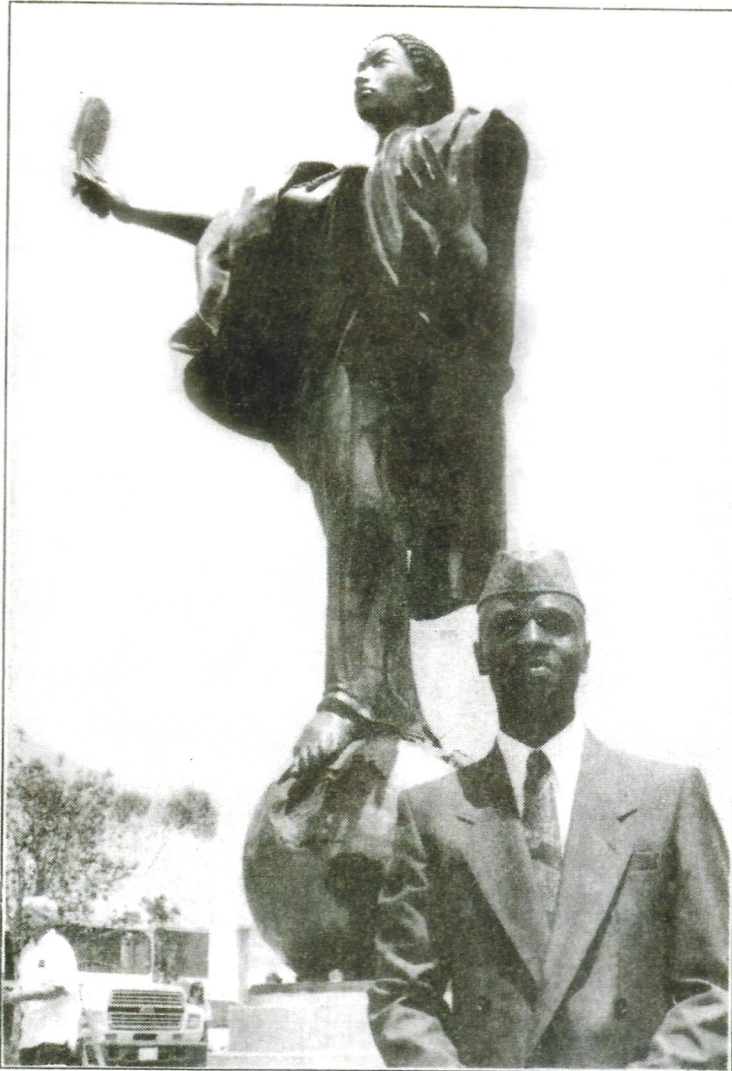




Metro



▲「인류애의 모성」을 제작한 나이젤 빈스가 작품의 의미를 제막식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인종화합 조각물 「인류애…」 제막

LA폭동으로 심화된 인종간 갈등과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 한 흑인 아마추어 조각가가 직접 구상, 제작한 다인종 화합의 상징물인 「인류애의 모성(Mother of Humanity)」이 지난 11일 정오 사우스센트럴 LA의 「왓츠 커뮤니티 액션위원회(WLCAC)」(10950 S. Central Ave.)에서 제막됐다.

LA시 관계자를 비롯, 흑인과 히스패닉 교계 지도자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제막식에서 「인류애의 모성」을 제작한 나이젤 빈스(38)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인종들이 「인간의 근원은 하나」라는 작품메시지처럼 신뢰하고 화합하며 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빈스는 폭동직후인 92년 6월 「인류애의 모성」 작업에 들어가 만3년만에 완성의 결실을 보게 됐다. 「인류애의 모성」은 높이 16피트, 2톤 무게의 동상이다. WLCAC의 테릴 왓킨스 위원장은 이 동상이 「인종화합은 물론 왓츠지역을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